

외국인, 관찰예능을 점령하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헬로우 방 있어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서울메이트' '내방 안내서'

외국인 관찰예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선보인 MBC예브리윌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시작으로, SBS TV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JTBC '나의 외사친', MBN '헬로우 방 있어요?', 율리브 '서울메이트', tvN '친절한 기사단' 등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연예인 가족 예능 한계...출연료 상승도 한몫
외국인 관찰 예능은 오랜 기간 대세를 이루던 연예인 가족 관찰 예능이 포화세 이룬 상황과 맞물린다. 스타 혹은 스타의 가족을 내세운 각종 관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지면서 새로운 소재와 출연진을 찾던 예능계가 외국인 출연자를 통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한류 붐을 타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도 많아졌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도 많아지면서 출연자 공급이 원활해진 것이 이러한 흐름을 도왔다. 연예인 관찰 예능이 쏟아지면서 연예인 출연료가 오르기도 제작진이 외국인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외국인 관찰 예능에는 출연료가 사실상 들지 않는다. 외국인 출연자에게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비 등도 제공하지만 별도의 출연료는 아예 없거나 거머쥘 수준으로 제공한다. 자연히 연예인을 내세울 때에 비해 제작비가 줄어든다.

◇ "한국 관심있는 외국인 많아"... "다양화가 관건"

'어서와...' '친절한기사단' 등 예능 붐몰 관찰 예능 늘어나 새로운 돌파구 찾아 제작비 절감·신선한 재미에 제작 늘어

외국인 관광객이 스타의 집에 홈스테이하는 '서울메이트'는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출연자를 모집한다. K팝의 인기를 타고 출연 희망자는 몰린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에 사는 친구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인공이다. 이 경우는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섭외하는 게 우선이다. 주로 '비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알려진 외국인이 출연했다. 그가 고향 친구들을 초대하면 프로그램이 출발한다.

지난 24일 첫선을 보인 '친절한 기사단'은 아예 인천공항으로 나가 즉석에서 출연자를 섭외한다. 촬영하는 대신 숙소까지 이동편을 제공하고 일정도 함께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호객'을 한다. 첫회에서는 한국 여성과 결혼을 앞둔 태국인 남성 가족과 방탄소년단에 폭 빠진 호주 관광객이 출연에 응했다. 아무래도 현장 즉석 섭외다 보니 실패율이 높았다. 갑자기 카메라를 들이대며 섭외를 하니 대다수가 거절했다. 하지만 극적으로 섭외에 성공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찰 카메라에 응해 '각본 없는 드라마'의 묘미를 살렸다.

◇ "문화적 충돌과 스토리를 꼬집어내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순간순간 겪는 문화적 충격과 충돌에서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정보나 관심도 사실상 없었던 이들이 여기저기를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뜻하지 않은 갈등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시선을 끈다. 우리의 모습과 문화를 외국인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는지가 신선한 재미를 준다.

이와 달리 '서울메이트'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이 출연 신청을 해 출발지점이 다르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는 외국인 출연자와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연예인의 교감이 중요하다. '서울메이트'의 감독이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온 여성 관광객들과 잇따라 편안하면서도 꼭 찬 조화를 이룬 것이 대표적인 예.

'친절한 기사단'은 외국인 손님들의 하루를 에스코트하며 그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 한국과의 특별한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에스코트하는 이들이 연예인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서울메이트'처럼 스타를 한 축으로 내세워 스타가 '호스트'로서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조명하며 인간적인 스토리를 끌어낸다. /연합뉴스



김명민 고현정 이승기

김명민·고현정·이승기... 안방·스크린 넘나들며 종횡무진

최근 11년 만에 다시 전파를 타고 있는 MBC 드라마 '하얀거탑' 속 김명민은 얼굴에 주름 하나 없이 젊고, 패기가 넘친다.

그가 30대 중반에 연기한 '하얀거탑'의 장준혁은 야망으로 가득 찬 천재의 시대. 어떻게 보면 속물이자 악역이지만, 김명민이 인간다운 고뇌를 지닌 인물로 설득력 있게 연기하면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로 거듭났다. 김명민 스스로 연기력이 최절정에 달했던 배역으로 장준혁을 꼽을 정도다. 그의 열연에 힘입어 '하얀거탑' 재방송 역시 신작 드라마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김명민은 다음 달 설 명절 때에는 '하얀거탑' 속 진중한 캐릭터와는 거리가 먼 코믹한 인물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김명민은 2월 8일 개봉을 앞둔 '조선명탐정 : 흡혈괴마의 비밀'에서 천재 탐정 김민 역을 맡았다. 콧수염을 양옆으로 길게 기르고 어떤 사건이든 해결하는 명탐정이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과 허세까지 갖춘 능력스러운 캐릭터다. 미인 앞에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허당끼'도 있다.

이승기는 요즘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연예인 중 한 명이다. 제대와 동시에 드라마와 예능에 동시 출연하며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서는 비투비 옥성재, 배우 이상윤 등 개성 강한 멤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예능감을 뽐내고 있다.

tvN 드라마 '하유기'에서는 오만함으로 무장한 악동 요고 손오공 역을 맡아 코믹부터 멜로까지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는 중이다.

이승기는 2월 하순에는 영화 '공황'으로 관객과 만난다. 이승기가 제대 후 처음 선보이는 영화로, 그의 스크린 나들이는 2015년 '오늘의 연애'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SBS 드라마 '리턴'에 출연 중인 고현정과 이진욱은 3월 개봉하는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에서도 남녀 주연을 맡았다.

영화는 어느 겨울날, 영문도 모르고 여자 친구에게서 버림받은 경유(이진욱) 앞에 불현듯 나타난 소설가 유정(고현정)의 이야기를 그린다.

'리턴'에서 비밀을 지닌 변호사이자, TV 범정소의 인기 진행자인 최자혜 역을 맡은 고현정은 영화에서는 주목받는 소설가지만, 도무지 글이 써지지 않아 고민하는 유정을 연기했다.

TV에서 정의감과 근성으로 토폴 뭉친 강력계 형사 독고영으로 출연 중인 이진욱은 영화에서는 한때 소설가를 꿈꿨지만, 지금은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유 역을 맡아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40 UHD 한식의 마음(재)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종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영화가 좋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이웃집 찰스	00 저글러스(재)	00 12 MBC 뉴스 20 문화사색(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토크Talk
1	00 넷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과을 행복아카데미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대 2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00 VJ 특공대	05 드림 주니어 스페셜 35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재)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 유치원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랭킹쇼 1.2.3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00 영상앨범 산(재) 30 살림하는 남자들	00 5MBC 뉴스 15 김경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성애-웬수들(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밤상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15 UHD 특집 환산성 오름꽃 35 우리말 겨우기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성애-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벨24 55 제보자들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의문의 실종
11	10 월요기획	10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	35 사랑의 가족(재)	10 도올스톡 30 앙코르 MBC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자연의 색 뉴캐슬도니아)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과학소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명 유치원 1~2 08:30 풀리워킹 핫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스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럭조림과 우양 배춧국)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범죄(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3:40 엠마 찾지마(재) 14:30 똑똑맨 15:00 우주탐험가 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보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엠마 까투리 16:15 두다다공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명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호기심 소녀 도트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린 20:40 아이 오픈(Aye-opener)	20:50 세계테마기행 (여기가 천국! 카리브 제도 1부 태양보다 빛나는 바하마) 21:30 한국기행 (야생의 집을 짓다 1부 산골에 사는 까닭은) 21:50 EBS 다큐프라임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신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22:45 엠마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계의 드라마 (트레팔리온 6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9일(음 12월 13일 辛酉)

<p>子 48년생 짐작을 버리고 객관성을 도모하라. 60년생 핵심사항의 확보를 위해 상호간에 이전투구 하는 형상이다. 72년생 제3자의 시기가 더 정확할 수 있다. 84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2, 10</p>	<p>午 42년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연되면서 갖가지 변수가 드러나게 되어있다. 54년생 대의를 도모할 수 있다. 66년생 굶은 것은 퍼자. 78년생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90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8, 88</p>
<p>丑 49년생 현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확실해 벗어나야만 한다. 61년생 과감하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진행해도 된다. 73년생 애자고 애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85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축전을 벌이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9, 85</p>	<p>未 43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 55년생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67년생 목전에서 앞어진 수레를 보는 것에 비유할 만하다. 79년생 과거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91년생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24, 35</p>
<p>寅 50년생 동시에 처리될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잘 살피자. 62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74년생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86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운세로다. 행운의 숫자 : 99, 95</p>	<p>申 44년생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예 포기함이 낫겠다. 56년생 목표로 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희망적이다. 68년생 변화에 따르는 상실감이 크겠다. 80년생 인식을 함께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59</p>
<p>卯 51년생 밤을 잠으려거든 밤의 굴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63년생 사소한 것이 큰 결실들로 작용할 수도 있다. 75년생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87년생 내적인 면에 많은 배려를 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28, 29</p>	<p>酉 45년생 행편과 사정을 잘 따져야만 차질이 없겠다. 57년생 집을 잔 채 거친 숨을 쉬면서 오르막길을 오름에 비유한만하다. 69년생 우선순위를 경중을 가려야만 하느니라. 81년생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3, 81</p>
<p>辰 52년생 지문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4년생 과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라. 76년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88년생 실질을 숭상하는 것이 생산적인 국면을 조성한다. 행운의 숫자 : 40, 68</p>	<p>戌 46년생 이상 징후가 보이니 지체 없이 종합 점검하라. 58년생 임시 상황이니 전혀 패념치 말라. 70년생 성취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니 예의 주시하라. 82년생 발전적인 방향이므로 계속 진행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54</p>
<p>巳 53년생 대중하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이니 완성을 염두에 두어라. 65년생 평소 애국하여 왔던 바를 실제로 접하게 되는 마당이다. 77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겠다. 89년생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자. 행운의 숫자 : 87, 97</p>	<p>亥 47년생 단편적인 파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니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9년생 마음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71년생 자신의 진기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83년생 겸손하자. 행운의 숫자 : 44, 1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